

업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7년 콘텐츠 수출액은 67억4천만 달러(잠정치)로 2016년(62억1천만 달러)보다 8.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콘텐츠 수출은 5년간 연평균 8.0%의 성장률을 유지했다.

사드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는 모바일게임의 성장 등에 힘입어 게임 수출이 선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 게임 수출은 2016년보다 9.3% 증가한 37억7천만 달러로 전체 콘텐츠 수출의 55.9%를 차지했다. 캐릭터와 지식정보(인터넷포털·인공지능) 수출도 7.4%와 9.5% 증가해 기여도가 컸다.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의 2017년 전체 매출액은 110조5천억원(잠정치)으로 2016년(105조7천억원)보다 4.5%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지식정보(9.2%), 음악(8.1%), 캐릭터(7.8%), 게임(6.7%)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 대중매체

### 신문

#### ■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 세계 36개국 중 ‘꼴찌’

우리나라 국민의 뉴스 신뢰도가 세계 36개국 가운데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17년 11월 23일 공개한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총 36개국 7만1천805명(국내 2천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국내 대부분의 뉴스를 신뢰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 36개국 전체 조사 대상자의 43%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 26%보다 높았다. 반면 한국은 그리스와 함께 23%가 동의한다고 답해 검열제도 때문에 언론 자유가 취약한 말레이시아(29%), 정부와 언론이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슬로바키아(27%)보다도 낮았다.

정치 성향별로 ‘주로 의존하는 뉴스 출처가 어디인지’ 선택하게 한 결과, 디지털 미디어를 꼽은 비율은 전체 응답자 중 진보층이 47%, 보수층이 43%로 비슷했다.

뉴스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62%)였으며 브라질(60%), 포르투갈(58%)도 높은 편에 속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보와 보수 간 디지털 미디어 뉴스 의존도 격차는 각각 52%와 39%로 세계 평균보다 컸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뉴스 의존도는 진보가 57%로, 보수 32%보다 25%포인트나 높았다.

#### ■ 뉴스 신뢰도 소폭 상승…종이신문 읽는 비율 10%대로 하락

2017년 우리나라 뉴스 매체와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2016년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이신문을 읽는 비율(신문 열독률)은 매년 꾸준히 줄어 2017년 처음으로

10%대로 하락했으며 모바일을 통해 뉴스를 보는 비율은 소폭 늘어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공개한 ‘2017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뉴스 미디어 신뢰도는 메시징 서비스와 SNS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서 2016년보다 높아졌다.

매체별로는 지상파TV의 신뢰도가 5점 만점에 4.07점으로 가장 높았고 종합편성채널(4.02점), 보도전문채널(3.94점), 뉴스통신(3.75점), 경제 및 전문신문(3.67점), 라디오방송(3.64점), 포털(3.59점), 전국종합신문(3.57점) 순으로 조사됐다. SNS 뉴스의 신뢰도는 2.94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메시징 서비스(3.03점)와 인터넷신문(3.27점)의 신뢰도도 낮은 편에 속했다. 언론인에 대한 신뢰도는 5점 만점에 3.11점으로 2016년보다 0.41점 상승했다.

2017년 신문 열독률은 2016년의 20.9%보다 4.2%포인트 하락한 16.7%로 집계됐다. 신문 열독률의 감소로 결합 열독률(일주일간 신문기사를 종이신문, PC 인터넷, 모바일 인터넷, 일반 휴대전화, IPTV 등 다섯 가지 경로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이용했다고 답한 비율)도 2016년 81.8%에서 2.8%포인트 하락한 79.0%로 나타났다.

미디어별 이용률은 TV가 93.2%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과 메시징 서비스가 각각 82.3%와 66.2%로 그 뒤를 이었다. 모바일을 통한 뉴스 이용률은 2016년의 70.9%보다 소폭 증가한 73.2%였으며 20~40대의 모바일 뉴스 이용률은 20대 94.2%, 30대 93.1%, 40대 88.1%로 평균 90%에 달했다.

#### ■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사임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이 2017년 3월 19일 사임했다. 홍 회장은 사임 전날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내고 사임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는 “탄핵 정국을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로 결심했다.”고 사임 사유를 밝혔다.

중앙미디어그룹에서 홍 회장의 아들인 홍정도 사장이 2015년 12월부터 중앙일보와 JTBC의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홍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세계은행(BRD) 경제개발연구소 경제조사역, 재무부 장관비서관, 대통령비서실 보좌관, 삼성코닝 부사장 등을 거쳐 1994년 중앙일보 사장으로 취임했다.

1999년부터 중앙일보 회장을 맡아오다 2011년부터 JTBC 회장을 겸임했다. 세계신문협회(WAN) 회장, 한국신문협회 회장, 주미 대사 등도 지냈다. 이견희 삼성그룹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다.

#### ■ 2016년 종이·인터넷 매출 0.3% 줄고 종사자는 0.5% 증가

2016년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매출액을 합산한 신문산업 전체 매출액은 3조6천514억원으로 2015년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17 신문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일간신문의 매출액은 2조7천993억원으로 전체

신문산업 매출액의 76.7%를 차지했다. 일간신문 중 가장 큰 매출액을 기록한 사업체군은 전국종합일간신문으로 38.6%였다. 다음으로 경제일간신문 19.3%, 지역종합일간신문 13.4%, 인터넷신문 12.4%, 주간신문 10.9% 순이었다.

전체 신문산업 매출액의 절반 이상인 54.9%가 광고 수입이었으며 부가사업 및 기타 수입은 24.1%, 종이신문 판매 수입 12.9%, 인터넷 상 콘텐츠 판매 수입은 8.1%로 조사됐다.

신문산업 전체 종사자는 2015년보다 0.5% 증가한 4만1천277명이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인 2만5천867명은 기자직 종사자였다. 매체별로는 일간신문이 1만5천875명(38.5%), 주간신문이 9천437명(22.9%), 인터넷신문이 1만5천965명(38.7%)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일간신문 기자직 종사자는 9천351명(36.2%), 주간신문 기자직 종사자는 5천764명(22.3%), 인터넷신문 기자직 종사자는 1만752명(41.6%)이었다.

신문산업 매출 조사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정기간행물 가운데 정상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과 전국종합주간신문, 지역종합주간신문, 전문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 4천459개 매체(4천2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 국내 일간지 유료부수 소폭 감소

전국 일간지 163개사의 2016년 총 발행 부수와 총 유료부수가 전년 대비 각각 0.78%, 0.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ABC협회에서 내놓은 '2017년도 일간신문 발행 부수, 유료부수 인증 결과'에 따르면 2016년의 총 발행 부수와 총 유료부수는 각각 967만3천885부, 713만5천778부로 집계됐다. 유료부수는 지국 혹은 가판업자가 구독자에게 판매한 부수를 의미하며 정기구독자, 가판, 기타 구독 등을 포함한다.

전국 종합일간지 11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476만7천648부(49.3%), 총 유료부수는 376만2천730부(52.7%)였다. 지역일간지 104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163만6천788부(16.9%), 총 유료부수는 101만9천855부(14.3%)였다. 경제지 15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171만5천979부(17.7%), 총 유료부수는 122만7천331부(17.2%)로 집계됐다.

스포츠지 7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68만2천120부(7.1%), 총 유료부수는 50만3천87부(7.1%)로 조사됐고, 영자지 3개사의 총 발행 부수는 7만735부(0.7%), 총 유료부수는 5만5천614부(0.8%)였다.

발행 부수 하락세의 진정에 대해 한국ABC협회는 대부분 신문사가 지속적으로 발행 부수를 줄이면서 유료부수 위주의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간 신문사별로는 조선일보의 유료부수가 125만4천297부로 가장 많았으며 동아일보(72만9천414부), 중앙일보(71만9천931부), 매일경제(55만536부), 한국경제(35만2천999), 한겨레(20만2천484부), 경향신문(16만5천133부), 문화일보(16만3천90부), 한국일보(15만9천859부) 순으로 많았다. 2015년과 비교하면 조선일보는 1만2천466부,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각각 2천374부, 3만383부 줄었으며 매일경제신문도 1천827부 줄었다.

## ■ 개요

2017년 방송가는 드라마 '도깨비'가 시청률 20%를 돌파하고, 아이돌그룹 신발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사회적 신드롬을 일으키는 등 케이블채널에서 화제작이 많이 나왔다. 지상파의 구독권이 무너져 내리는 가운데 9~11월에는 KBS와 MBC가 파업을 하면서 시사교양, 예능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한류스타 송중가-송혜교가 깜짝 결혼발표 후 부부가 되고, 김주혁이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등 연예계에서도 많은 소식이 나왔다.

## ■ 케이블은 20% 뚫고, 지상파는 40% 넘어

케이블TV가 1995년 국내에서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청률 20%를 넘긴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2016년 12월 2일 시작해 2017년 1월 21일 끝난 tN '도깨비'가 마지막 회에서 시청률 20.5%를 기록하며 22년의 케이블TV 역사를 다시 쓴 것이다. 김은숙 작가는 2016년 '태양의 후예'로 국내외를 들었다 놔다 한 뒤 '도깨비'로 2년 연속 초대박을 치며 한국 최고의 드라마 작가임을 증명했다.

지상파의 자존심은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이 지켰다. 12월 10일 시청률 41.2%를 기록하며 40%를 넘어섰다.

시청률 40%가 넘는 프로그램이 나온 것은 2015년 2월 KBS 2TV '가족끼리 왜 이래' 이후 근 2년 만이다. '찬란한 유산', '내 딸 서영이'를 집필한 소현경 작가는 '황금빛 내 인생'에서도 짝찬 이야기로 시청자를 들었다 놔다 하는 필력을 과시했다. 그 뒤를 이어 SBS TV '피고인'이 28.3%, SBS TV '낭만닥터 김사부'가 27.6%를 기록하며 인기를 모았고, KBS 2TV '김과장'과 '마녀의 법정', '고백부부', '쌈, 마이웨이' 등도 시청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JTBC는 '힘쎈여자 도봉순'과 '품위있는 그녀'가 잇따라 히트하며 드라마 브랜드를 강화했고, tN은 '비밀의 숲'과 '명불허전', OCN은 '타널'과 '보이스', '블랙' 등으로 선전했다.

반면, 큰 기대 속에 출발한 전지현-이민호 주연의 SBS TV '푸른 바다의 전설',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SBS TV '사임당 - 빛의 일기', 유아인-임수정 주연의 tN '시카고 타자기' 등은 참패했다. 또 KBS 2TV '맨홀'은 시청률 집계기 시작된 이래 지상파 드라마 최저 시청률인 1.4%로 추락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한편, SBS TV '언니는 살아있다', MBC TV '불어라 미풍아', MBC TV '당신은 너무합니다' 등은 한국형 막장 드라마의 계보를 이어갔다.

크리스마스이브에는 tN '화유기'가 방송 도중 중단되는 최악의 방송사고를 냈다. 단 2회 만에 벌어진 일로, CG 후반작업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을 시작했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방송사고 전날에는 한 스태프가 작업 중 추락해 크게 부상하는 사고까지 벌어지면서 '한국형 생방송 드라마'의 제작방식과 드라마의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보도로 중국이 금한령을 내리면서 '중국 특수'가 사라진 한 해였다. 중국은 한류 콘텐츠를 막으면서도 자국 내 한류 콘텐츠의 불법 시청과 무단 표절 등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도깨비' 등이 중국에서 불법 시청을 통해 화제를 모았지만, 국내 제작자는 아무런 수입을 얻지 못했다.

반면,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미국에서 한류 드라마 리메이크작이 잇따라 데뷔하며 한류 드라마의 새로운 판로를 뚫었다. SBS TV '신의 선물'을 리메이크한 '썸웨어 비트윈'(Somewhere Between)이 7~9월 지상파인 ABC에서 10부작으로 방송된 데 이어, 9월 25일부터는 KBS 2TV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더 굿 닥터'(The Good Doctor)가 ABC에서 18부작으로 방송됐다.

## ■ 관찰예능 인기는 계속…'프로듀스 101' 신드롬

SBS TV '미운 우리 새끼'가 시청률 20%를 넘어서며 관찰예능 프로그램의 인기를 굳건히 견인했다. MBC TV '나혼자 산다' 역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전현무를 '2017 MBC 연예대상' 주인공으로 만들었고, SBS TV '동상이몽2 - 너는 내 운명'도 '한중 커플' 추자현-위샤오광(于晓光) 부부의 인기를 바탕으로 높은 시청률을 올렸다.

이들 외에 SBS TV '싱글와이프', '내 방 안내서', E채널 '별거가 별거냐'와 '아빠가 보고 있다 - 내 딸의 남자들',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2', MBC TV '발칙한 동거'와 '이불 밖은 위험해', 올리브 '서출메이트', tN '신혼일기' 등 수많은 관찰예능 프로그램이 전파를 뒀다.

케이블에서는 tN '윤식당'과 JTBC '호리네 민박',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흥권을 쳤다. 유명 배우들이 인도네시아 발리 인근의 한 작은 섬에서 일주일간 한식당을 운영하는 프로젝트인 '윤식당'은 낭만을 자극하고 힐링을 선사하며 시청률이 14.1%까지 올랐다. 또 톱스타 이효리가 제주도 자신의 집에 민박을 치고 손님을 맞는 '호리네 민박'은 역대 JTBC 예능 프로그램 최고인 9.995%를 기록했다. 두 프로그램 모두 인기에 힘입어 시즌2가 제작에 들어갔다.

MBC에브리원은 개국 10년 이래 시청률이 2%를 넘어서지



▲ 3월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tN 새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제작발표회에서 배우 이서진(왼쪽부터), 윤여정, 정유미, 신구가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못하다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통해 단숨에 4.805%까지 치솟았다. 스타가 해외여행을 하는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속에서 그와 정반대로 일반인 외국인들의 한국 첫 여행기를 조명한 '역발상' 콘셉트가 성공한 것이다.

엠넷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즌2는 시청률로 재단할 수 없을 만큼 신드롬을 일으키며 2017년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새벽 2시 30분에 끝난 심야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5.2%를 거뒀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데다, 방송 클립 영상이 3억 뷰를 넘어서고 대부분의 출연자가 커다란 팬덤을 형성하는 등 그 뜨거운 반응은 시청률 50%가 부럽지 않았다.

'프로듀스 101' 시즌2가 대박을 치자 KBS 2TV가 '아이돌 리부팅 프로젝트-더 유닛', 엠넷이 '스트레이 키즈', JTBC가 '믹스나인'을 제작해 바통을 이었다.

이 밖에 지적 수다 예능을 표방한 tN '알쓸신잡'이 예능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동명의 팟캐스트에서 지상파로 진출한 KBS 2TV '김생민의 영수증'이 화제를 모았다.

그런가 하면 SBS TV '웃찾사'가 시청률 부진 끝에 5월 종영하면서 지상파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은 KBS 2TV '개그콘서트'만 남게 됐다.

KBS와 MBC 노조가 두 달여 파업을 하면서 양사 예능과 시사교양, 뉴스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파행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 예능'인 MBC '무한도전'과 KBS '박2일' 등의 결방이 시청자들에게 크게 다가왔다. MBC는 특히 라디오 프로그램이 전면 파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 ■ 송중기-송혜교 결혼부터 김주혁 사망까지

톱스타 바-김태희가 5년 열애 끝에 2017년 1월 결혼에 골인했고, '태양의 후예'가 낳은 커플 송중기-송혜교가 10월 31일 국내외 엄청난 관심과 화제 속에 부부가 됐다. 또 류수영-박하선, 이동건-조운희, 이상우-김소연, 주상욱-차예련 등의 배우 부부가 탄생했다.

그런가 하면 연기 경력 20년의 인기 배우이자 '박2일'을 통해 '구태이 형'이라는 애칭을 얻은 김주혁이 2017년 10월 30일 대낮 차 사고로 사망해 큰 충격을 안겨줬다. 5년간 체중감상으로 투병하던 '국민 배우' 김영애를 비롯해 '포크계 대부' 조동진, '사투리 연기의 대가' 김지영도 하늘로 떠났다.

톱스타 유아인은 2017년 내내 병역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그는 어깨 근육 파열과 골종양(뼈에 생긴 악성 종양) 진단으로 5차례 신체검사 끝에 6월 군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병역 기피 논란이 거세게 일어 몸살을 앓았다.

## 뉴미디어

### ■ 이제는 뉴미디어의 시대…안방까지 찾아온 Si 붐

소셜미디어(SNS)와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스마트 시대의 뉴미디어가 점점 보편화하면서 주류 매체의 자리를 확고하게 다진 한 해였다. 반면 신문과 방송 등